



[특집비평/비평3: 변혁운동론 시각]비역사적 구조 분석

저자 (Authors)	김동춘
출처 (Source)	경제와사회 23 , 1994.9, 131-139 (9 pages) Economy and Society 23 , 1994.9, 131-139 (9 pages)
발행처 (Publisher)	비판사회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146293
APA Style	김동춘 (1994). [특집비평/비평3: 변혁운동론 시각]비역사적 구조 분석. 경제와사회, 23, 131-139.
이용정보 (Accessed)	성공회대학교 220.149.185.50 2016/02/09 17:3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비역사적 구조 분석

김동춘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사회학)

한국에서 '계급' 개념은 막 출생하여 성장도 하기 전에 없어질 것을 요구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한때 한국의 소장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는 '계급연구'를 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인 적도 있었으나, 이제 계급연구는 가장 인기 없는 종목이 되었다. 주류사회학적 시각에서의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도 드물지만, 맑스주의적인 계급론을 견지하던 학자들도 별다른 경험적인 연구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분석맑스주의적 계급론에 영향을 받은 경험적인 계급분석 작업이 활성화되어 계급이론의 공백을 메우면서 계급연구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라이트(Wright)식의 계급분석이 입지를 넓혀가는 것은 우선은 정치적인 상황의 탓도 있겠지만, 기존 주류사회학의 계층론이나 맑스주의적 계급론의 설명력의 한계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계급연구가 침체된 사회학계와 계급론 논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법은 실천우선주의 혹은 원칙주의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는 국내의 연구 풍토에 '설명

력'이라는 무기로 도전하고 있어서 국내 계급연구의 발전과 균형회복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라이트, 레빈(Levine), 쉐보르스키(Przworski), 로머(Roemer) 등의 분석적 맑스주의적 시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는 못하며, 더구나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개량적인 방법에는 미숙하다. 따라서 이들의 시각과 방법론에 바탕을 둔 국내의 계급연구에 대한 필자의 생각도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연구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연구 자체가 보다 더 성과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볼까 한다. 필자가 청탁을 받은 주제는 이러한 접근법이 한국의 역사적·민족적 현실 혹은 사회변혁운동의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지만 우선 방법론상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거론하고자 한다.

분석적 맑스주의는 라이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역사적·경험적 맑스주의와는 달리 인과적 기제를 명확히 하고 명료하고 체계적인 모델을 구성하려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주지하다시피 복잡한 현실의 중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보다 단순화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회현실의 중요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개념의 단순화, 조작화 과정에서 현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고, 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데 머물거나, 현실이 주는 실제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분석 맑스주의적 방법론 역시 미국의 주류사회학 일반이 견지하는 인과적 분석방법 및 신실증주의적 과학론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동시에 갖게 된다고 본다. 우선 개념을 명확하고 조작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자의적인 정의, 개념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료한 인과적 분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가 오히려 불분명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은, 조돈문, 신광영의 계급의 개념은 모두 조은·강정구·신광영의 조사에 기초하고 있는데, 계급위치(class location)를 규명하기 위한 조작화는

논외로 하더라도, 계급의식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화는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 필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계급의식을 개념화하기 위한 6개 설문 중에서 3개가 그 유의미성이 의문시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된 항목도 그것을 계급의식의 잣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시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조사결과 프롤레타리아와 빈민 혹은 전문노동자와의 의식상의 차이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거나 심지어는 프롤레타리아 보다 전문노동자가 더욱 계급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계급의식의 개념화에는 비판의식, 정치의식의 차원이 분류되지 않은 채 섞여 있고, 계급의식의 중요한 차원을 구성하는 계급간의 적대감, 대안적 사회질서에 대한 인식을 포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계급의식은 계급위치의 반영이기 이전에 계급실천과 계급역량의 함수이기도 하고,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항목이 한국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적절한 설문인가, 그리고 미국, 스웨덴의 피조사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념은 그것이 갖는 의미와 구체적 맥락에 대한 천착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공허해질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신광영의 '계급이동'의 개념에는 '계급'과 '이동'이라는 상호 화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결합되어 있어서, 분석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리고 박탈계급과 비박탈계급 간의 경계-계급이동의 차단-를 제외한 계급이동을 직업이동, 혹은 계층이동이 아닌 구태여 계급이동의 개념으로 포착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조돈문의 분석에서 동일한 물적 조건의 차원으로 설정한 노동시간, 고용규모, 내부승진, 가구소득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다른 차원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 노동시간과 가구소득은 본래적 의미에서 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부승진은 내부노동시장의 발전, 즉 노동자에 대한 수직적 포섭전략과 능력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고용규모는 노동자의 집합적 동원의 가능성, 즉 조직화와 연대의 비용(cost)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런 변수를 모두 물적 조건이라고 규정

하게 되면, '본래적 의미에서의' 물적 조건은 풍부하나 동원의 가능성은 제약을 받는 경우, 물적 조건이 향상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원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경우에 계급의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계급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물적 조건의 변이에 따른 계급의식과 계급행동의 편차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과 관련시켜 본다면 계급이동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계급이동의 차단=계급형성의 등식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유용한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하고, 물적 조건의 정도와 계급의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자들의 소외와 박탈감을 좌우하는 데(노동통제를 고려하지 않은) 물적 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과적인 분석은 통상의 경우 그러하듯이 분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변수들만이 거론되고, 그렇지 않은 변수는 무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인과적인 분석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빠지게 되어 실제 중요한 원인과 결과가 거론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고 원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뒷전으로 밀려날 위험성이 있다. 조은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뿌리부르주와 내부구성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에서 동질성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신광영의 연구에서는 왜 한국의 계급이동 모델은 박탈모형Ⅱ가 가장 적합도가 높은지, 자본주의 국가 일반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는지, 한국에서 그러한 유형으로 귀결된 원인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며, 조돈문의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이 계급의식에 곡선형의 부의 효과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동시간이 노동자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과연 물적 조건이 상승한다면 계급의식도 누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빠진 느낌이다. 결국 이들 모든 분석은 명료한 인과분석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계급, 계급의식, 계급구조화를 좌우하는 원인들이 어떤 것이며, 그것들간의 비중은 어떠하며, 향후에 변수의 효과는 어떻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과적 질문을 남겨 두고 있

다.

이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계급분석은 연구자의 관심과 접근태도에 있어서 계층론적 시각과는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계급관계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변동을 설명하고, 변동의 주체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하에 이들 계급연구가 한국의 역사적 변동과 변혁운동의 기반을 설명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이들 연구의 결과가 변함 없이 보여주는 것은 발전된 자본주의인 한국에서의 계급관계의 객관적 실존과 계급형성의 구조적 기반의 확대·강화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한국의 사회변동이나 변혁운동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조은의 연구를 통해서도 과도적 범주로서가 아닌 실체로서 재생산되는 삐띠부르주와지의 실존이 민주화 혹은 노동자의 계급행동을 제약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광영의 연구를 통해서도 한국에서의 계급이동의 기회가 차단되고 있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계급형성의 객관적인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돈문의 연구는 궁핍화론의 명제를 비판하면서 특전적인 지위를 가진 노동자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노동운동이 대규모 사업장의 비교적 양호한 조건속에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급정치의 실현가능성, 계급연합 혹은 민중블록의 형성 가능성, 혹은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가능성 등이 계급분석에 요구되는 실제의 사회변동론적 실천적 쟁점이라고 본다면, 이들의 계급분석은 여전히 구조분석에 머물러 있고, 구조분석과 계급형성연구를 매개하는 조건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은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들이 개념에 따른 계급의식상의 차이가 분류된 계급집단에 따라 별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전문노동자 보다 계급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보다 전문노동자가 사회의 변혁에 더욱 적극성을 가진 변혁의 주

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리고 조돈문의 논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정한 물적 조건이 갖춘 노동자가 더욱 계급의식이 높다면, 한국에서의 노동자 계급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들 특전적인 노동자들이 곧 계급정치의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들 연구가 계급형성과 사회변동의 설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계급구조화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범위내에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 우선 나라별 자본주의의 성격과 발전단계, 노동정치의 성격에 대한 유형화·범주화가 선행된 다음 한국사회의 계급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위치, 계급구조화의 사실만 보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와 한국의 차이는 별로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계급형성의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차별적인데,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의 계급형성을 좌우하는 변수는 유럽형, 북구형, 미국형, 남미의 조합주의형과도 차별적일 수밖에 없고,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매개적으로 이들 국가와 비교하거나, 이들 사회에서 적용되는 변수들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자면 국토가 작고,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같은 나라는 경제적 계급관계가 정치적 조건에 의해 압도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문체와 정치문체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 내적 변수는 국가 외적 변수와 국제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 '공동체성'이나 민족 '공동체'의 규정력이 커서 계급은 물론 어떠한 사회관계도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노동자나 빈민 부르주아간에 실질적인 정치의식상의 차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외종속적인 경제구조와 중앙집중적인 정치권력이 오랜 세월동안 유지된 나라에서는 거시-미시의 연결을 통해 계급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추상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미시적 단위에서의 계급관계의 안정성이 대단히 낮고, 쉽게 계급관계가 역전될 수 있어서 미시구조를 통해 전체를 설명하려는 방식이 오히려 부적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시적 차원, 혹은

사업장 단위에서의 노동자의 의식과 행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동계급 형성과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국과 같이 노동자의 계급적 실천의 경험이 거의 없고, 계급조직이 차단된 조건에서는 계급구조 혹은 계급위치는 계급의식, 계급행동, 계급형성과는 심대한 거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계급구조는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계급형성에 일정한 한계(limit)를 설정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미약한 계급실천이 역으로 계급관계와 계급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조은의 분석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자본가가 계급갈등의 인지도가 높고, 전문노동자가 프롤레타리아보다 높은 계급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정치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되기가 어렵다.

모든 나라의 계급구조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서 그 나라가 처한 위치가 '국가'의 매개를 거쳐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계급이 해당 사회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범주인가, 얼마나 그 사회의 특성을 밝혀주는 데 기여할 것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바로 계급분석이 해당사회의 세계체제내의 위치 및 공업화의 역사, 계급투쟁의 역사, 국가의 성격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점에서 이들의 계급분석은 현재로서는 기존의 계급론, 계층론과 마찬가지로 역사와 절연된 추상적 구조분석에 머문 느낌을 갖게 된다. 한국에서 정치적 분할선과 사회적 분할선이 '계급'으로 단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들 역시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의 국가, 경제규모, 계급형성의 역사적 경험, 가족질서, 문화적 전통, 국제경제질서와 정치질서의 변동 등의 내외적 조건이 한국의 계급구조와 계급형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계급분석이 추상적인 구조분석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국사회의 성격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기존의 국내 사회학자들이 제기하였듯이 한국사회에서 과연 계급, 계급관계가 사회변동, 정치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개념인가, 유의미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유의미한가, 국제정치질서와 경제질서

가 급격히 변하게 될 향후에도 그러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그런데 필자는 국외에서 수학한 모든 주류사회학자나 맑스주의적 사회학자는 물론, 보다 '원칙적' 맑스의 입장을 견지하려 했던 국내의 사회과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개념적 논의 및 수입된 가설의 검증에만 매달려 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변동이나 정치변동을 설명하는 데 계급연구의 설명력과 능력이 별로 발휘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계급론의 '인기하락'에 일조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사회과학이 국제무대에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학자들의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기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한국에 관해서는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국내에서 수학한 연구자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론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창의적이고 보편성을 가진 이론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정신적 무국적자인 셈이다. 이러한 실천적 기반과 이론적 창의성의 부족이 곧 현실 설명력의 부재, 실천적 적용능력의 부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설명력이 분석의 정교함에서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이러한 약조건하에서 설명력의 공백을 메우려는 이들의 시도는 그 자체로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은 좀더 많이 실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분석방법을 좀더 현실 적합적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향후의 노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신광영. 1994,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나남.

Carchedi, Guglielmo. 1989, "Classes and Class Analysis," in Eric O. Wright(ed.), *The Debate on Classes*, London: Verso.

Scott, Mcnall G., Rhonda F. Levine & Rick Fantasia(eds.). 1991, *Bringing*

- Class Back in: Contemporary and Historical Pers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 Murphy, Raymond. 1986, "The Concept of Class in Closure Theory: Learning from rather than Falling into the Problems Encountered by Neo-Marxism," *Sociology*, vol.120, no.2(May).
- Vogler, Carolyn M. 1985, *The Nation State : The Neglected Dimension of Class*, Vermont: Gower Publishing Company.
- Wright, Erik O. & Donmoon Cho. 1992, "The Relative Permeability of Class Boundries to Cross-Class Friendships: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Sweden and Norwa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7(February).
- Wright, Erik O. 1990, 「분석 맑스주의란 무엇인가」, 쿠진스키·왈러스타인 공편, 『전환기의 세계와 맑스주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정보기술과 화이트칼라 노동</p> <hr/> <p>금융기업 노동과정연구</p> <hr/> <p>김진영 저</p> <hr/> <p>한울아카데미/94.09.05발행/360면/10,000원 ISBN 89-460-2138-4 94330</p>	<p>제1장 서론</p> <p>제2장 노동과정연구의 이론적 접근-화이트칼라 출현과 노동과정/ 노동과정에서의 기술 및 관리통제</p> <p>제3장 전산화와 직무구조의 변화-금융기업간 경쟁심화와 전산화/ 기업의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p> <p>제4장 관리통제전략-전략관리통제의 기제/ 관리통제의 내용</p> <p>제5장 노조의 대응-노조의 조직역량/ 기술의 도입에 대한 노조의 대응</p> <p>제6장 노동의 질 및 노동력 구성의 변화-노동의 질의 변화/ 화이트칼라 노동집단별 노동의 질의 변화</p> <p>제7장 결론</p>
---	---